

원저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내의 침구치료 임상근거 현황고찰

김건형¹ · 노승희¹ · 이명수² · 양기영¹ · 신병철¹ · 김재규¹ · 이병렬¹

¹부산대학교 한의전문대학원 임상의학부

²한국한의학연구원 뇌질환연구센터

Abstract

Current Evidence of Acupuncture in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an Overview

Kim Kun-hyung¹, Noh Seung-hee¹, Lee Myeong-soo², Yang Gi-young¹,
Shin Byung-cheul¹, Kim Jae-kyu¹ and Lee Byung-ryul¹

¹Division of Clinic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²Brain Disease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verview the current status of Cochrane systematic review of acupuncture.

Methods : Published Cochrane systematic reviews and protocols for evaluating acupuncture and/or moxibustion were searched by the term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Issue 1, Cochrane Library, 2011. Only reviews or protocols that regarded acupuncture or moxibustion as primary methods of intervention in their reviews were included. Data regarding first author national affiliation, intervention and disease, as well as the number of reviews or protocols that included Korean, Chinese, or Japanese databases in search strategies were obtained.

Results : We found 92 hits at screening, and 59 studies were eligible for this review. Included interventions were acupuncture (n=56), auricular acupuncture (n=2), and moxibustion (n=1) for various diseases and conditions. The number of publications of Cochrane systematic reviews or protocols increased gradually from 2002 to 2011. First authors' affiliations were located in China (n=32), Australia (n=8), UK (n=7), Canada (n=4), U.S. (n=4), Germany (n=2), Norway, (n=1) and Korea (n=1). 44, four and four Cochrane reviews adopted Chinese, Korean and Japanese databases, respectively.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접수 : 2011. 7. 7. · 수정 : 2011. 8. 1. · 채택 : 2011. 8. 1.

· 교신저자 : 이병렬,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한의학전문대학원 임상의학부

Tel. 055-360-5963 E-mail : kolbr@naver.com

Conclusions : Search strategies in a substantial number of Cochrane reviews or protocols for acupuncture and moxibustion heavily relied on Chinese databases. Korean databases were underused in existing Cochrane reviews and protocols, and Korean authors were much less involved in the Cochrane systematic reviews or protocols than Chinese authors. Further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in order to incorporate evidence of acupuncture reported in Korean databases into the Cochrane systematic reviews.

Key words : acupuncture, moxibustion, Cochrane systematic review, evidence based medicine

I. 배경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Cochrane systematic review)은 다양한 보건의료 중재 및 치료기술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정을 통해 생성된 신뢰성 및 재현성 있는 임상 정보를 환자, 임상, 의학연구자 및 정책결정자 등 다양한 의료행위를 둘러싼 의사결정 집단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임상, 의학연구, 보건의료 정책의 최적화된 수행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중심의학적 연구 중 하나이다¹⁾.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은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의 생성, 교육, 배포 등 임상근거의 수립 및 근거의 임상현장 중개를 위해 1993년 결성된 비상업적 기구이며, 전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코크란 연합의 활동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통해 2011년 현재 총 6,544개의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및 연구계획서가 출판되었다²⁾. 코크란 연합은 유럽·북미·남미·호주·서태평양 아시아·중국 등 전 세계에 분포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도 코크란 지부가 개설되어 근거중심의학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각 질환별 및 주제별 전문가로 형성된 총 53개의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그룹을 통해, 다양한 질환영역과 임상주제에 대한 각종 치료 및 중재 기술들의 효과 및 안전성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평가하여 출판하고 있다.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은, 어떠한 상업적 단계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않으며, 체계적이며 호환적인 방법론과 근거 평가 과정, 이중의 심사제도와 주기적인 연구결과 갱신 등으로 인해 일반 학술지에 출간된 체계적 문헌고찰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의 impact factor (Thomson Rheuter사에서 제공하는 특정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의 인용정보를 계량화한 점수)는,

2009년 기준 5.653으로서 일반 및 내과의학 분야 (ISI category medicine, general and internal)에서 11위에 달하는 등, 연구분야에서 높은 인용도 및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²⁾.

현재 침구치료기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침구치료의 임상근거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되고 있다. 침구치료기술은 특히 통증 및 만성질환, 혹은 암 환자의 치료 부작용 관리 등 서양의학적 치료효과가 일정한 한계를 보이는 분야에서 빈용되고 있으며⁴⁾, 일부 증상에 대하여는 침구치료가 증상 관리에 제한적이거나 효과적이라는 임상근거도 이미 도출된 바 있다⁵⁻⁹⁾.

그러나, 대부분의 침구치료 임상연구 결과들은 소규모 연구수행에 근거하거나 불충분한 방법론적 질로 인해 아직 임상효과 및 안전성을 확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⁰⁾. 따라서 개별 연구결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임상근거를 제시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은 침구치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근거평가 및 향후 향상된 임상근거수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밝혀준다는 면에서, 침구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이 근거중심의학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고려할 때, 침구치료에 대한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의 수행 현황을 개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침구치료 근거수립에 한국의 침구학이 참여하고 기여할 방법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침구치료에 대한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의 현황을 개괄함으로써 한국에서 수행되는 침구 임상연구가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국제적 근거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을 검색할 수 있는 코크란 라이브러리 웹사이트(www.thecochranelibrary.com/view/0/index.html)에 접속하여, 2011년도 코크란 라이브러리 issue 1에서, 검색어로 ‘acupuncture’, ‘moxibustion’을 각각 입력하여 분석에 포함될 연구를 검색하였다. 초기 검색에서 ‘acupuncture’ 92건, ‘moxibustion’ 3건이 각각 검색되었으나 ‘moxibustion’의 경우 ‘acupuncture’의 검색결과와 중복되어 배제되었다. 총 92건의 검색결과에 대한 제목 및 초록 분석을 통해, 침구치료를 주요 평가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기타 치료법의 하나로 분류하여 포함시킨 연구 혹은 침구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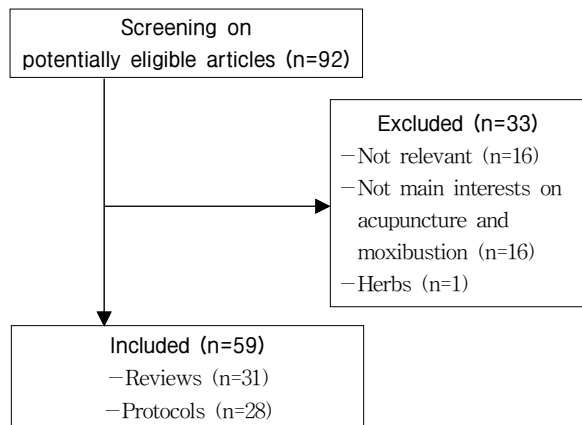


Fig. 1. Flowchart of study selection

의 임상근거 평가와 상관없는 연구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59건의 연구에 대해 전문을 입수한 후,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자료추출을 수행하였다. 이미 완료된 리뷰논문을 분석 시 필요할 경우 연구 프로토콜 논문을 참조하여 자료추출을 시행하였다 (Fig. 1).

자료 추출은 체계적 문헌고찰의 출판년도, 출판 형태(완결된 문헌고찰 혹은 연구계획서), 치료기술, 대상질환, 제1저자의 국적, 공저자 중 중국·일본·한국 등의 아시아 지역 저자 포함 여부, 중국문헌 데이터베이스 검색 여부, 한국 및 일본 등 기타 아시아 지역 데이터베이스 검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저자의 국적은 출판된 논문에 표기된 저자의 소속 기관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치료기술 중, 침치료가 주된 분석대상 치료기술이며 뜸, 경혈지압 등 부수적으로 기타 경혈자극 기술이 포함된 경우 침치료로 분류하였다. 만약 뜸치료를 단독으로 분석할 경우, 뜸치료 기술을 분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III. 결 과

2002~2011년 현재까지 침구치료 관련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의 출판은 매 연도 비교 시 증감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02년 1개의 침치료 관련 문헌고찰 논문이 출판된 데 비해 2010년에는 10개의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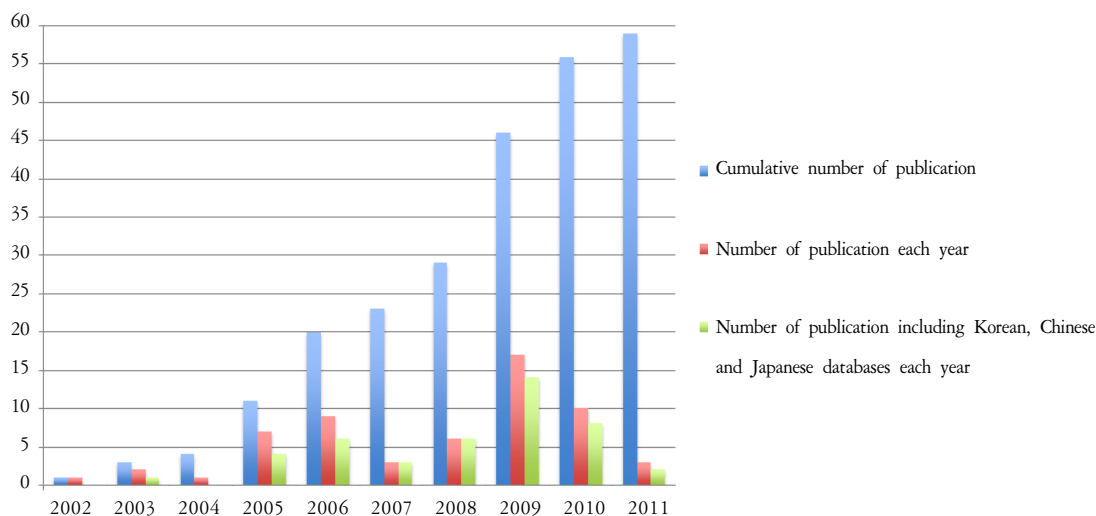


Fig. 2. Number of Cochrane reviews and protocols for acupuncture and moxibustion during 2002 and 2011

Table 1. Diseases and Conditions Treated by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Cochrane Systematic Reviews

Diseases and conditions (number of articles)	Publication year	Status	Diseases and conditions (number of articles)	Publication year	Status
Musculoskeletal diseases (7)			Neuropsychiatric diseases (7)		
Lateral elbow pain	2002	Review	Schizophrenia	2005	Review
Shoulder pain	2005	Review	Cocaine dependence	2006	Review
Rheumatoid arthritis	2005	Review	Insomnia	2007	Review
Low back pain	2005	Review	Autistic spectrum disorder	2009	Protocol
Neck disorder	2006	Review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2009	Protocol
Fibromyalgia	2009	Protocol	Opiate misuse	2009	Protocol
Peripheral joint arthritis	2010	Review	Depression	2010	Review
Neurological diseases and movement disorders (19)			Gastrointestinal disease (4)		
Acute stroke	2005	Review	Chronic constipation	2003	Protocol
Parkinson's disease	2006	Protocol	Chronic hepatitis B virus infection	2005	Protocol
Stroke rehabilitation	2006	Review	Irritable bowel syndrome	2006	Review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2006	Protocol	Functional dyspepsia	2010	Protocol
Vascular dementia	2007	Review	Cancer care (2)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2008	Protocol	Chemotherapy induced nausea and vomiting	2006	Review
Dysphagia in acute stroke	2008	Review	Cancer pain	2011	Review
Restless leg syndrome	2008	Review	Ophthalmologic disease (2)		
Epilepsy	2009	Protocol	Glaucoma	2007	Review
Guillain-Barre syndrome	2009	Protocol	Myopi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2009	Protocol
Postherpetic neuralgia	2009	Protocol	Otologic disease (1)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2009	Protocol	Tinnitus	2009	Protocol
Traumatic brain injury	2009	Protocol	Respiratory disease (1)		
Gilles de la tourette's syndrome	2009	Protocol	Chronic asthma	2003	Review
Migraine prophylaxis	2009	Review	Michellaneous (7)		
Tension-type headache	2009	Review	Postoperative pain	2006	Protocol
Hypertension	2010	Protocol	Chronic fatigue syndrome	2006	Protocol
Bell's palsy	2010	Review	Erectile dysfunction	2008	Protocol
Multiple sclerosis	2010	Protocol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revention	2009	Review
Women's health (9)			Mumps in children	2010	Protocol
Induction of labor	2004	Review	Overweight or obesity	2010	Protocol
Premenstrual syndrome	2005	Protocol	Smoking cessation	2011	Review
Menopausal hot flashes	2008	Protocol			
Assissted conception	2008	Protocol			
Pain in endometriosis	2009	Protocol			
Polycystic ovarian syndrome	2009	Protocol			
Breech presentation	2010	Review			
Primary dysmenorrhea	2011	Review			
Uterine fibrosis	2010	Review			

문이 출판되는 등 지난 10여 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출판 논문의 누적 개수는 2011년 현재까지 59개로서, 지난 10여 년 간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2011년 현재 전체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중 본 연구에 포함된 침구치료 관련 문헌고찰의 비중은 0.9%(59/6,544)였다(Fig. 2).

본 논문의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총 59건의 논문 중 56건이 침치료에 대한 문헌고찰을 시행하였으며, 2건^{11,12)}은 이침만을, 나머지 1건¹³⁾은 뜸치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침구치료 문헌고찰의 대상질환은 근골격계·호흡기계·소화기계·산부인과계·신경정신과계·신경계, 암 환자 관리, 오관과계 및 기타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Table 1).

침구치료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 총 59건 중 제1저자의 국적은 중국이 32명(54%)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뒤이어 호주 8명(14%), 영국 7명(12%), 캐나다 4명(7%), 미국 4명(7%), 독일 2명(3%), 노르웨이 1명(1.5%), 한국 1명(1.5%) 등이었으며 일본은 단 한 명도 1저자로서 문헌고찰 논문을 출판하지 못하였다(Table 2). 총 59건의 논문 중 한국·중국·일본 등의 아시아 국적 공저자를 포함한 논문 역시, 중국 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의 수가 42건(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 지역 연구자들을 공저자로 전혀 포함하지 않은 연구는 17건(29%)이었다. 총 59건 중 한국 저자가 공저자로 포함된 경우는 2건(3%), 일본 저자가 공저자로 포함된 경우는 1건(1.5%)에 그쳤다.

침구치료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 총 59건 중

Table 2. Nationality of the First Author in the Cochrane Review for Acupuncture and Moxibustion

Nationality	Number of first author (%)
Chinese	32(54.0)
Australia	8(13.0)
UK	7(12.0)
Canada	4(7.0)
USA	4(7.0)
Germany	2(3.0)
Korea	1(2.0)
Norway	1(2.0)
Japan	0(0)
Total	59(100.0)

중국·한국·일본 등 침구학이 전통의학의 주요한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는 총 44건(75%)이었다. 이 44건의 논문 중 중국어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논문에서 검색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100%), 3건(7%)의 논문만이 한국 및 일본 데이터베이스 모두를 추가 검색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만을 추가로 포함한 경우가 1건(2%), 일본어 데이터베이스만을 추가로 포함한 경우가 1건(2%)으로, 아시아 지역 데이터베이스 검색은 중국어 데이터베이스에 크게 편중되어 있었다. 한편 한국·중국·일본을 통틀어 아시아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의 출판 건수는 2002년 0건에서 2009년 14건, 2010년 8건으로 상승하였다(Fig. 2).

중국어 데이터베이스가 검색대상으로 포함된 총 44건 중, 중국 주/공저자가 포함된 건수는 40건, 포함되지 않은 건수는 4건으로 대부분의 경우 중국 저자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 DB를 포함하였으나 중국 주/공저자가 포함되지 않은 연구의 경우, 공저자의 소속은 중국이 아니지만 출신이 중국인¹⁴⁻¹⁶⁾이거나, 중국어 논문의 번역과 해석을 도왔지만 저자로 포함되지 않은 중국 연구자의 도움을 받았다¹⁷⁾. 일본어 데이터베이스가 검색대상으로 포함된 총 4건의 논문 중, 일본 공저자가 포함된 논문은 1건¹⁴⁾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일본 저자를 포함하지도 않고 저자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어 논문의 번역을 도울 별도의 연구자를 언급하지도 않았다¹⁸⁻²⁰⁾. 한국어 데이터베이스가 검색대상으로 포함된 총 4건의 논문 중, 한국 저자가 포함된 경우는 1건²⁰⁾,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3건이었다^{18,19,21)}. 한국 저자가 공저자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지 않은 논문은 2건이었다^{9,22)}.

IV. 고찰

본 연구는 침구치료 효능에 관한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의 수가 2002년 기준 1건에서 2011년 3월 기준 5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침구치료의 근거 평가범위 또한 근골격계 질환 및 신경계 질환, 여성건강, 신경정신과 질환 및 기타 내과적 질환 등 다양하게 분포하여, 침구치료의 다양한 임상적용 현황을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반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저자 국적 분포의 경우, 중국·한국·일본 등 침구치료가 활용되어 왔던 국가의 저자가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의 저자로 포함되는 경우도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침구치료가 전통의학 및 현재에도 활용되고 있는 주요 아시아 국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의 검색대상으로 포함된 논문의 개수 역시 지난 10여 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 연구자의 저자 포함비율 및 중국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가 높았는데, 이에 비해 한국이나 일본 연구자의 저자 포함비율 및 해당 국가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코크란 문헌고찰 내 활용도는 매우 낮았다. 중국어 데이터베이스가 검색대상으로 포함된 코크란 문헌고찰에서 해당 국가의 연구자가 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비율이 91%(총 44건 중 40건)라는 점은, 중국과 별개의 임상경험과 환경을 반영하는 한국 및 일본의 침구 임상 논문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가 코크란 문헌고찰의 검색대상으로 포함되기 위해 한국 및 일본의 연구자들이 코크란 문헌고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가능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빠짐없이 검색하며 언어의 제한을 최소화시켜 분석 대상 논문이 누락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비뚤림 위험을 줄이는 필수적인 방법론이다²³⁾. 이에 미루어 볼 때,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한국 저자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내에서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한국어로 출간된 침구치료 임상연구 논문이 코크란 문헌고찰의 대상으로 포함되게 하는 것은 침구치료 효능에 관한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론적 질을 보다 제고시키기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의 소개 및 활용, 논문작성 방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 침구치료에 대한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에 보다 많은 한국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체계적 문헌고찰의 원자료로 사용되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가 코크란 문헌고찰에 포함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설사 한국어 데이터베이스가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의 검색대상으로 포함되더라도 한국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포함될 수 없다.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은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무작위배정 대조군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기존 국내에서 수행되고 한국어로 보고된 무작위배정 침구치료 임상연구의 수가 침

구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그 방법론적 질도 낮았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²⁴⁻²⁶⁾, 향후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의 원자료로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침구치료 임상논문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무작위배정법에 의한 침구치료 임상연구의 수행 및 보고가 진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연구자들에게 대한 임상연구방법론의 지속적 교육 및 국내 한의학 관련 학술지에서 무작위대조 임상연구의 보고와 수행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논문투고를 장려하고 이를 심사의 기준으로 표준화시키는 작업은, 향후 한국의 임상시험 수준을 제고시키고 결국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등 양질의 침구치료 근거생성에 필요한 원자료에 한국의 침구치료 임상연구 결과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절실하다.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침구치료를 주요 평가대상으로 삼는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침구치료가 여러 다른 평가대상 중 하나로 포함된 코크란 문헌고찰 내의 정보에 대해서는 본 논문 안에서 포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중 침구치료 근거에 대한 완전한 개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둘째, 이미 문헌고찰이 완료된 review 논문과 문헌고찰 계획을 세운 protocol 논문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논문이 체계적 문헌고찰 완료와 상관없이, 검색대상 데이터베이스 분포 및 저자 국적 등을 주요 분석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해서 체계적 문헌고찰 및 프로토콜 논문의 상태 여부에 따라 중국·한국·일본 등의 데이터베이스 포함 및 저자 분포 등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 수 없다. 셋째, 본 논문은 코크란 protocol 논문 출판 이전의 연구 주제 등록(title) 단계에 있는 침구치료 연구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 및 질 환 분포면에서 침구치료 코크란 문헌고찰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본 연구는 코크란 문헌고찰 내 침구치료 근거에 대한 서술적인 고찰이며 통계적 비교는 하지 않았다.

V. 결 론

코크란 라이브러리 2011, issue 1에서 검색된 침구치료에 대한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 59건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논문의 74%에서 중국 데이터베

이스를 검색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저자에도 중국 소속 저자가 포함되거나 중국어 해석이 가능한 연구자가 개입하였지만 한국 데이터베이스가 검색대상으로 포함된 경우는 전체 분석대상 중 7%에 불과하였으며, 한국 저자의 코크란 문헌고찰 내 공헌도 또한 미미하였다. 향후 한국 침구치료 임상근거를 세계에 알리고, 침구치료의 근거평가 시에 한국 침구치료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한의학 연구자들에 대하여 코크란 문헌고찰의 소개 및 교육을 통해 코크란 문헌고찰에 더 많은 한국 연구자가 참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엄밀한 침구치료 무작위 대조 연구 수행을 통해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의 원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VI. 참고문헌

1. About the cochrane collaboration. <http://www.cochrane.org>, Accessed at 26, June, 2011.
2. About the cochrane library. <http://www.thecochranelibrary.com/view/0/AboutTheCochraneLibrary.html>. Assessed at 26, June, 2011.
3. Grimes DA, Hou MY, Lopez LM, Nanda K. Do clinical experts rely on the Cochrane library? *Obstet Gynecol.* 2008 ; 111(2 Pt 1) : 420-2.
4. Barnes PM, Bloom B, Nahin RL.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se among adults and children : United States, 2007. National health statistics reports ; no 12. Hyattsville, MD: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08.
5. Ezzo J, Richardson MA, Vickers A, Allen C, Dibble S, Issell BF, Lao L, Pearl M, Ramirez G, Roscoe JA, Shen J, Shivnan JC, Streitberger K, Treish I, Zhang G. Acupuncture-point stimulation for chemotherapy-induced nausea or vomiting.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6 ; 2 : CD002285.
6. Linde K, Allais G, Brinkhaus B, Manheimer E, Vickers A, White AR. Acupuncture for migraine prophylaxi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9 ; 1 : CD001218.
7. Linde K, Allais G, Brinkhaus B, Manheimer E, Vickers A, White AR. Acupuncture for tension-type headache.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9 ; 1 : CD007587.
8. Berman B, Langevin HH, Witt CM, Dubner R. Acupuncture for chronic low back pain. *N Engl J Med.* 2010 ; 363 : 454-61.
9. Manheimer E, Cheng K, Linde K, Lao L, Yoo J, Wieland S, van der Windt DA, Berman BM, Bouter LM. Acupuncture for peripheral joint osteoarthriti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0 ; 1 : CD001977.
10. Manheimer E, Wieland S, Kimbrough E, Cheng K, Berman BM. Evidence from the Cochrane Collaboration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erapies. *J Altern Complement Med.* 2009 ; 15(9) : 1001-14.
11. Lui S, Li C, Xia J, Terplan M. Auricular acupuncture for opiate dependence in substance misuse treatment programme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09 ; Issue 4 : Art No : CD008043. DOI : 10.1002/14651858.CD008043.
12. Gates S, Smith LA, Foxcroft D. Auricular acupuncture for cocaine dependence.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6 ; 1 : CD005192.
13. Coyle ME, Smith CA, Peat B. Cephalic version by moxibustion for breech presentatio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5 ; 2 : CD003928.
14. Furlan AD, van Tulder M, Cherkin D, Tsukayama H, Lao L, Koes B, Berman B. Acupuncture and dry-needling for low back pai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5 ; 1 : CD001351.
15. Law SK, Li T. Acupuncture for glaucoma.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7 ; 4 : CD006030.
16. Trinh KV, Graham N, Gross AR, Goldsmith CH, Wang E, Cameron ID, Kay T; Cervical Overview Group. Acupuncture for neck disorder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6; 3: CD004870.
17. Smith CA, Hay PP, MacPherson H. Acupuncture for depressio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0 ; 1 : CD004046,
18. Cui Y, Liu Z, Zhang W. Acupuncture for Gilles de la Tourette's syndrome.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9 ; 2 : CD007832.
19. Cui Y, Wang Y, Liu Z. Acupuncture for restless

- legs syndrome.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8 ; 4 : CD006457.
20. Cui Y, Zhishun L, Marchese M, Lee MS, Wang J, Niu J. Acupuncture for multiple sclerosi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0 ; 1 : CD008210.
21. Li Y, Zeng RF, Zheng D. Acupuncture for tinnitu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9 ; 4 : CD008149.
22. Lim B, Manheimer E, Lao L, Ziea E, Wisniewski J, Liu J, Berman BM. Acupuncture for treatment of irritable bowel syndrome.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6 ; 4 : CD005111.
23. Lefebvre C, Manheimer E, Glanville J. Chapter 6: Searching for studies. In: Higgins JPT, Green S (editors).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Wiley. 2008.
24. Kim YS, Jun H, Chae Y, Park HJ, Kim BH, Chang IM, Kang SK, Lee HJ. The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n overview of clinical trials in acupuncture.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05 ; 2(3) : 325-52.
25. Lee MS, Shin BC, Choi SM, Kim JY. Randomized clinical trials of constitutional acupuncture: a systematic review.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09 ; Suppl 1 : 59-64.
26. Kong JC, Lee MS, Shin BC. Randomized clinical trials on acupuncture in korean literature: a systematic review.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09 ; 6(1) : 41-8.